

## 『五萬分一地形圖』에 나타난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분포와 특성\*

김선희\*\*

###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Names on 1:50,000 Topograph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20th Century\*

Sunhee Kim\*\*

**요약** : 지명은 생활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지적 표현이자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역사, 문화적 산물로서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이해하는 유용한 기초자료이다. 본 연구는 일제시기 대축척 지도에 수록된 지명의 유형별, 지역별 분포와 빈도를 파악하고 이를 전자 문화지도로 구현함으로써 시대적, 지역적 특성을 읽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분포 양상은 지형과 지세, 인구와 경지, 군현 수, 행정 및 군사 기능 등 국토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의 보편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명의 양태별 비중과 빈도를 통해 우리 고유지명의 변화는 물론 자원수탈, 철도부설, 국경관리, 만주경영 의욕 등 한반도 식민경영을 위한 일제의 정책적 수요와 필요에 따른 시대적 변화상을 읽을 수 있었다. 나아가 嶺 嶺 嶺 嶺 嶺 '項' 坪 '谷' 등과 같은 자연 및 인문 지명어의 빈도와 분포 특성을 비교하여 당대 사람들의 환경인식과 선호경향, 지명의 명명기반과 형태 등의 지역적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서로 다른 지리환경적 특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된다.

**주요어** : 지명, 지명어, 분포, 빈도, 전자문화지도, 지역성

**Abstract** : The geographical name is an expression of human knowledge about living conditions and a basic tool for understanding about regional cultures and history as a result of spatiotemporal chang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frequency and distribution of geographical names of 1:50,000 topographic map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materializing on electronic cultural atla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aspect of distributed geographical names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s a general trait of the country's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 included geographical features, population, arable land, the number of counties and villages, and functions of administration and military, etc. Second, through the frequency and weight of their names, the analysis shows not only the change of native names, but also the country's phase of the time by Japanese colonial policies such as exploitation of resources, the construction of railroads, and a desire to control of the border area with Manchuria. In addition, the study identifie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preferences, and naming basis and forms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type of geographical names associated with village and ridge such as 'Chi' 'Ryung' 'Duk' 'Hang' 'Pyeong' 'Gok'. In particular, those characteristics were largely affected from environmental difference of each area.

**Key Words** : geographical names, toponym, distribution, frequency, electronic cultural atlas, regional characteristics

\* 본 연구는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KRF 2004-074-AL0012).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강사(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nnykim22@gmail.com

## 1. 서론

### 1) 연구 목적

사람에게 저마다 이름이 있듯이 인간 삶의 터전이 되는 지표상에도 무수히 많은 이름이 존재한다. 장소나 사상을 인지하고 구별하고자 표시하는 지명이 바로 그것이다. 지명(geographical name)은 일종의 언어기호로서 좁게는 인간생활의 터전이 되는 특정 장소 또는 지역에 붙여진 땅 이름(place name)에서 넓게는 일정 범위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제 지리사상의 명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sup>

지명은 그 토지의 역사를 말하고, 그 곳의 지리를 말한다(이영택, 1986, 30). 이는 지명이 생활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지적 표현이자 지역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역사,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명은 인간의 geomentality(윤홍기, 1987, 185)와 역사적 변인이 반영된 문화경관이자 문화소통의 수단이며, 인간과 환경의 교섭에 의해 나고, 성장하며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공유자산으로(남영우, 1997, 12) 지역성과 공간적 속성을 지니는 지리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지명에는 어떤 형태이든 자신들의 거주공간을 인지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이고 향수적인 느낌의 내용과 의미가 들어 있게 마련이고, 이것은 개인의 경험에 바탕을 둔 환경인식의 결과로서 자신들의 세계상을 반영하고 있다(Kaups, 1966, 36).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명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을 비롯하여 역사학·민속학·어문학 등의 제 학문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언어학적 입장에서 어원론적, 형태론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지리학 분야에서의 지명연구는 주제의 다양성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실례로 지리교육적 입장에서 교과서상의 지명 빈도와 내용을 분석한 연구(조강민, 1975; 최영춘, 1981), 단위 지역의 지명 분류와 분포 특성을 밝힌 연구(전경숙, 1979; 안교식, 1989; 김옥자, 1992; 서명인, 1998; 김정미, 2003), 지명의 지역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손국자, 1998;

박태화, 1999; 박경준, 2003; 정치영, 2005),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지명 연구(신중성, 1982; 김연옥, 1986; 최종석, 2003), 지명의 어원과 역사적 변천 양상 및 요인을 분석한 연구(남영우, 1997; 이상찬, 2003; 김순배, 2004; 김기혁, 2005), 지명을 환경지각의 결과로 보고 거주지로서의 자연촌락에 대한 사람들의 환경관을 탐색한 연구(정진원, 1982), 지명과 지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김지은, 2001)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지명이 인간의 시간 및 공간 지각을 반영한 하나의 실재물로서 그 기원과 변천 요인, 이동경로, 분포와 입지 특성 등을 통해 명명 당시의 환경과 동기, 역사적 배경, 문화소통의 과정 등은 물론 사람들이 장소와 지역, 그리고 경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별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개의 연구가 소규모의 특정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국 단위의 지명 체계와 분포 특성 등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명의 유형 분류가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명정보의 방대함이나 자료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지명의 이력이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비교하는 데도 무리가 있었다.

본 연구는 공간지각의 결과로서 지명 속에 내재된 지리 및 역사 환경적 특성과 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지리적 세계(geographical world)(Seamon, 1978, 15)와 시대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당대의 국토지리정보를 집약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대축척 지도 가운데 일제시기에 제작된 『五萬分一地形圖』상에 수록된 지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지역적 분포와 빈도 등을 비교함으로써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체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지명을 통해 지역성을 읽어 보고자 한다.

### 2) 연구 자료 및 방법

사람들이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의 수단으로 언어, 문자, 그림, 사진,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표의 공간정보 또는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1차 자료원으로서 종이지도는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대축척 지도에는 지표의 지형지세는 물론 취락과 교통, 각종 시설물 등

## 2.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지물의 이름이 무수히 수록되어 있어서 이들 지명을 통한 특정 시기 및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밝히는 데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일제가 한반도에 대해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을 시작하는 통감부(1906)와 총독부(1910)가 설치된 이후에 제작된 대축척지도에 수록된 지명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일제시기 『五萬分一地形圖』(이하 『일제시기기본도』)의 지명 데이터베이스<sup>2)</sup>를 활용하였다.

1914년부터 1918년에 걸쳐 제작된 『일제시기기본도』는 비록 일제에 의해서 제작되었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만들어진 대축척 지형도<sup>3)</sup> 가운데 그 완성도가 가장 높아 우리나라 근대지도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지도는 삼각측량에 의해 만들어진 1:50,000 대축척지도로 행정경계, 하계망, 도로망 등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지명 외에도 자연 및 인문지명, 특정 사물이나 현상의 명칭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명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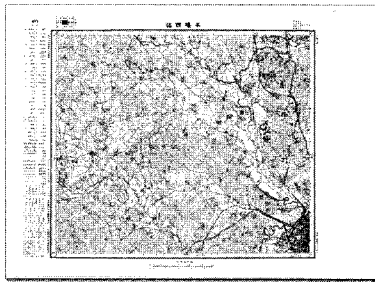
여기에 근대지도가 가지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하나인 범례가 117항목에 달해 이전의 지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대지도의 근간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시기기본도』는 한일병합 후, 일제에 의해 시행된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철도의 부설, 해안지역의 간척, 농지개량사업 등 한반도 지배를 위한 다양한 식민정책이 반영되어 있어서 당대의 지명을 통해 국토의 변화된 모습을 조망해 볼 수 있다(박선영, 2006, 25-28).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지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 지명을 크게 행정·자연·인문 지명 등으로 유형화하고, 그 하위 분류체계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 각각의 지명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 유형별, 지역별 분포와 비중을 비교하였다. 여기에 보다 세분화된 각각의 지명어 빈도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 지명의 정확한 위치정보가 부여된 전자문화지도(electronic cultural atlas)<sup>4)</sup>로 구현함으로써 지명의 공간적 분포 양상과 입지 관계를 확인하고, 그 지역적 특성을 추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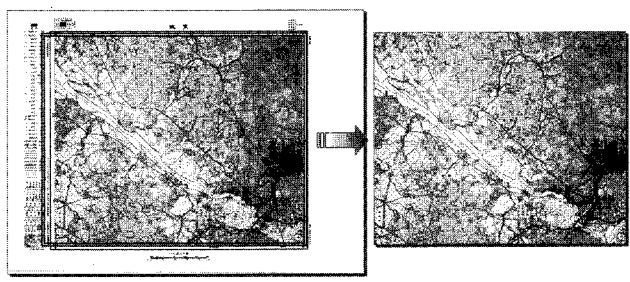
지명은 인간과 자연, 세대와 세대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토착성과 보수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Mario, 1965, 59) 동시에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구에 따라 지명 고유의 장소성과 역사성이 훼손되거나 소멸되는 예도 적지 않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할수록 시·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명 역시 다양한 변화 양상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방대한 지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관리하고, 나아가 효율적으로 분석,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료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명이 가지는 다양한 지리적 함의를 통하여 역사적 복원과 추적이 어려운 특정 시기의 지역 특성을 규명하고, 그 시·공간적 변천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는 물론 보존과 활용 면에서도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성패는 그것이 담고 있는 자료의 양과 질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자료에서 밝혔듯이 『일제시기기본도』는 일제에 의해 제작된 대축척지도 가운데 삼각측량에 의한 상세한 국토 표현과 범례 등이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총 12만 3,633개에 달하는 방대한 지명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체계 및 한일병합 후의 변화 양상까지 담고 있어서 20세기 초 한반도의 역사, 지리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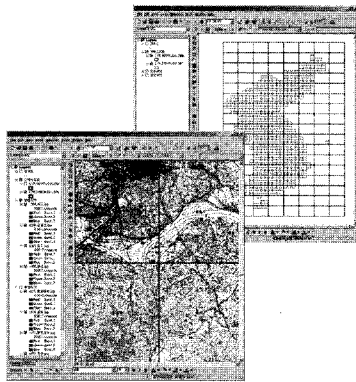
『일제시기기본도』의 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우선 1914년부터 1918년간 일제에 의해 제작된 1:50,000 지형도 총 722 도엽을 스캔하고, 각 도엽의 내도곽선 밖 난외주기 부분을 제거하는 클립작업과 경위도 보정 작업을 거친 후 실질적인 지명 입력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도상의 모든 지명을 지도 위에서 직접 디지털이징하였는데, 즉 미리 스캔한 원지도를 ArcMap 화면에 띄우고, 지명입력 도구창을 활성화시킨 후 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클릭하여 직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폴리곤을 형성하였다. 이때 모든 지명은 지리좌표 값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지명의 정확한 위치정보와 그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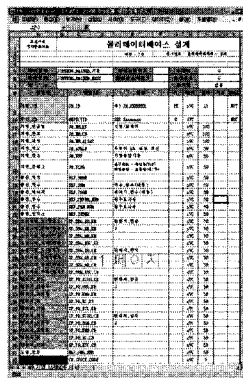
①베이스 맵 스캐닝  
(일제시기 1:50,000 지형도, 722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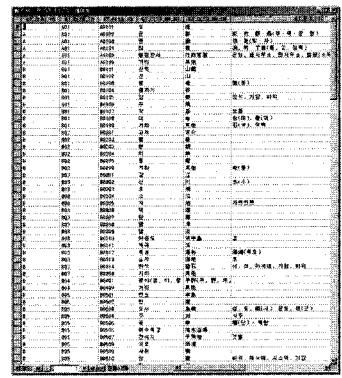
②지도 클립(C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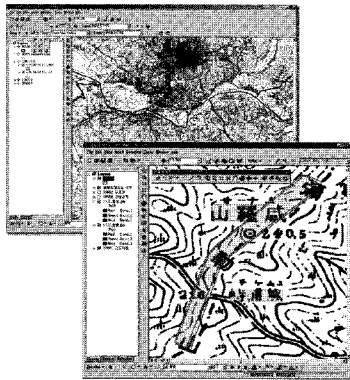
③보정(Adjustment of Coordin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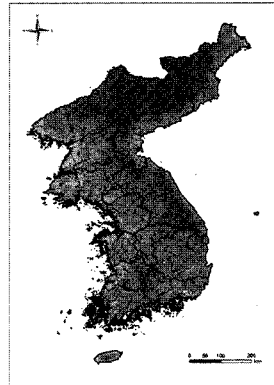
④지명 DB 설계



⑤지명 유형 코드 설계



⑥공간 및 속성자료 입력



⑦주제도 작성

그림 1. 지명 DB 구축 단계

천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는 원위치/ 지명/ 유형코드/ 현위치/ 각도/ 입력자/ 도엽코드/ 점수자 등으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지명 폴리곤에 대한 이들 속성정보는 'attributes' 창을 띄워 입력하였다. 지명 입력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는 Arc GIS와 ACCE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안하였고, 입력된 자료는 ACCESS 프로그램으로 변환되어 방대한 지명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일괄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제별, 지역단위별 빈도와 분포 등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로 이용된 원지도가 모두 전자지도로 구현되어 있어서 지명정보에 대한 속성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주제도를 구현해 볼 수도 있다.

지명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지도상에 수록된 모든 지명이 주제 값·공간 값·시간 값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주제 값은 지명의 양태(mode)에 따라 점, 선, 면으로 부여하였고, 유형(type)은 3단계 분류체계를 따랐다. 모든 지명은 1단계에서 행정지명·자연지명·인문지명으로 대분류되고, 2단계에서 행정·산지·고개·하천·해안·취락·경제·교통·군사·문화 등으로 중분류되었으며, 3단계에서는 행정지명도·군·면·리·행정관서 등으로, 산지지명은 산·봉·악·대 등으로, 취락지명의 리·동·촌·실 등과 같이 지명의 접미어를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분류되었다. 이러한 지명유형분류는 각각의 지명에 고유한 코드 값을 부여하여 1단계 대분류는 영문 알파벳 A(행정지명)·B(자연지명)·C(인문지명)로 구분하고, 2단계와 3단계 중소분류는 각각 01~99까지 구분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예컨대 자연지명<산지>산은 B01002, 인문지명<취락>(리)는 C010101로 고유의 코드 값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지명의 공간 값은 기본도에 나타나 있는 원위치(지도 제작 당시의 관할 행정구역)와 현재의 위치를 도·군·면·리 단위까지 입력하고, 기본도 위에서 직접 디지털이징함으로써 지리좌표 값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그런데 각 지명의 현위치는 현재의 행정구역 리·동 단위까지의 경계표시가 명확한 기본도 위에서 입력되어야 함으로써 남북한 지역을 일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남한은 2001년 행정자치부에서 간행한 『전국행정지도(전 2권, 총 231도엽)』를 기본도로 현위치를 입력할 수 있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해방 후 잦은 행정구역 변화와 정확한 면·리·동 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는 지도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현위치 입력이 보류된 상태이다. 『전국행정지도』 역시 스캔 및 보정작업을 거쳐 전자지도화함으로써 일제시

기 한반도의 모든 지명은 원위치 확인이 가능해졌고, 남한지역은 현재의 관할 행정구역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지명의 행정구역 변동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각의 지명은 원자료의 편찬시점에 따라 시간 값을 갖게 되는데 이는 지명의 생성과 소멸, 확대와 축소, 분열과 병합, 이동과 확산은 물론 단일 사상에 대한 이명의 변화나 동일지명의 공간적 변화 등 지명이력을 관리하고 추적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혁, 2006, 97-98).

### 3. 지명의 유형과 지역적 분포

『일제시기기본도』의 지명 데이터베이스는 총 722도엽에 수록된 모든 지명을 대상으로 먼저 지명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지명의 유형화는 효율적인 지명 분류와 정리, 검색, 관리 등을 위한 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지명을 그 형성배경과 유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명, 자연지명, 인문지명으로 대별하고, 각 지명어의 양태에 따라 중분류와 소분류로 나누었다. 이러한 지명의 하위 분류체계를 토대로 행정지명 13개 유형, 자연지명 56개 유형, 인문지명 107개 유형 등 총 176개의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일제시기기본도』에 수록된 지명은 총 12만 3,633개이며, 지명 표기에 따라 한자 지명 12만 3,457개, 일본어 지명 150개, 한일혼용 지명 26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명의 어구조와 형태, 표기양식 등과 관계 없이 원지도의 인쇄상태가 불량하여 지명 해독이 불가능하거나 행정경계가 모호하여 위치확인이 불분명한 지명, 유형분류가 불분명한 지명 등 101개를 제외한 12만 3,532개의 지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전체 분석 대상 지명의 유형별 분포 정도를 보면 행정지명이 35,007개(28.3%), 자연지명이 18,442개(14.9%), 인문지명이 70,083개(56.7%)로 나타나 인문지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라도에 22,906개의 지명이 분포하여 지명 유형에 상관없이 수록된 지명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경상도 20,351

표 1. 지명의 유형별, 지역별 분포

(단위: 개, %)

	행정지명	자연지명	인문지명	총계
강원도	2,742(7.8)	1,963(10.6)	6,307(9.0)	11,012(8.9)
경기도	3,214(9.2)	1,285(7.0)	6,041(8.6)	10,540(8.5)
경상도	6,859(19.6)	2,562(13.9)	10,930(15.6)	20,351(16.5)
전라도	5,956(17.0)	3,772(20.5)	13,178(18.8)	22,906(18.6)
충청도	4,493(12.8)	1,305(7.1)	8,682(12.4)	14,480(11.7)
평안도	4,736(13.5)	3,547(19.2)	10,153(14.5)	18,436(14.9)
함경도	4,220(12.1)	2,626(14.2)	6,537(9.3)	13,383(10.8)
황해도	2,787(8.0)	1,382(7.5)	8,255(11.8)	12,424(10.1)
총계	35,007(100.0)	18,442(100.0)	70,083(100.0)	123,532(100.0)

개, 평안도 18,436개, 충청도 14,480개, 함경도 13,383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명 유형에 따른 지역적 분포를 보면 행정지명의 경우 단위 면적이 크고 군현 수가 많았던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충청도 등지에서 지명이 많이 나타났다. 자연지명의 경우는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강원도 순으로 지명수가 많았고, 인문지명은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충청도, 황해도 순으로 지명수가 많았는데 이러한 지역적 분포는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은 물론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식민정책과 당시의 인구 및 경지면적, 읍치, 문화유산 등의 규모와 분포 및 지역의 기능적 기반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된다.

### 1) 행정지명의 유형과 분포

행정구역은 지역의 자연환경적 기반과 인구, 토지, 물산, 취락, 교통, 각종 시설 등에 기초한 인문환경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서 단순히 행정 단위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심리적 유대 및 소통의 기반이자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으로서 문화 단위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정보를 담고 있는 공간단위로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과 그 이름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인의 영향으로 여러 차례 큰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에서 1914년 일제에 의해 자행된 한반도에 대한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는 군, 면 단위의 행정

구역 이름부터 작은 마을명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지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일제시기기본도』상에 수록된 행정지명은 총 35,007개이다. 지명 유형분류체계에 따라 행정지명은 과거와 현재의 행정단위 및 행정관서 등에 기초하여 道/郡/面/里/行政官署/越境地/古縣/特別市/區/出張所 등 13개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전체 행정지명 가운데 리 단위 지명이 가장 많아 26,584개(75.9%)였으며, 면 단위 지명 5,872개(16.8%), 군 단위 지명 1,827개(5.2%), 행정관서명 719개(2.1%)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단위 행정구역이 작은 리, 동과는 달리 지도상의 면과 군 단위 지명의 수가 실제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한계점<sup>3)</sup>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복 입력된 것을 제외하면 군 지명이 257개, 면 지명이 2,764개로 크게 줄어든다.

한편 전체 행정지명의 지역별 분포는 경상도에 6,859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라도 5,956개, 평안도 4,736개, 충청도 4,493개, 함경도 4,220개 등이었으며, 그 외에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순으로 분포가 많았다. 이 가운데 중복 입력된 면, 군 단위의 행정지명 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충청·전라·경상 등 삼남지방은 나라 안에서 인구 및 경지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들로서 조선시대부터 인구규모와 읍치 등의 분포에 기초한 군현의 수가 많았음을 1789년 『戶口總數』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

표 2. 행정지명의 유형별, 지역별 분포

(단위: 개)

	군	면	리	행정관서	기타	총계
강원도	186(27)	506(219)	1,986	63	1	2,742
경기도	139(26)	512(303)	2,494	68	1	3,214
경상도	260(47)	1,067(550)	5,351	180	1	6,859
전라도	266(41)	934(489)	4,655	100	1	5,956
충청도	153(30)	589(315)	3,691	60	0	4,493
평안도	335(38)	980(392)	3,275	146	0	4,736
함경도	339(31)	750(238)	3,088	43	0	4,220
황해도	149(17)	534(258)	2,044	59	1	2,787
총계	1,827(257)	5,872(2,764)	26,584	719	5	35,007

주: ()는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상 중복 입력된 수를 제외한 실제 지명 수임.

표 3. 조선후기와 일제시기의 지역별 면, 군수

(단위: 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평안	함경	황해	총계
조선후기	군	38	26	54	56	71	42	24	23	334
	면	482	231	569	775	819	505	267	303	3,951
일제시기	군	26	27	30	41	47	38	31	17	257
	면	303	219	315	489	550	392	238	258	2,764

자료: 『戶口總數』(1789), 임학성(2004), 정치영(2004), 『일제시기기본도』지명 데이터베이스 등을 기초로 필자 재작성.

부지방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등지와 같이 각도의 감영이 위치하거나 府·大都護府·牧·都護府 등이 설치되어 상위 행정 및 군사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던 곳들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며(정치영, 2004, 48-49), 이에 기초하여 군현의 수도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시기의 행정지명을 이전의 구한말지도와 비교하면 리, 동 단위까지 보다 세분화된 행정체계를 반영하고 있어서 행정구역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 이전의 행정명이 수록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등과 비교하면 군현의 치소(治所)와 리, 동 명칭이 크게 감소하여 일제에 의한 한반도의 고유 지명에 대한 말할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실례로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변동과 복원 연구(김중혁, 2003, 112)에 따르면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를 전후로 지역별 군 단위 행정구역이 크게 변동한 것으

로 나타나 15세기 중반에 정립된 8도 330군 체제가 1914년 13도 220군으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충청도 30개, 경상도 29개, 전라도 20개, 경기도 16개, 평안도 9개 등으로 군수가 줄어 행정구역 개편 후 전국의 군수는 모두 112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14년 이전의 리, 동 단위의 마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을 토대로 지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 이전 행정중심지였던 경기도의 마을명은 모두 5,175개, 함경도는 4,746개였다(정치영, 2005, 58-73). 하지만 『일제시기기본도』에 수록되어 있는 경기도의 리, 동 명칭은 실제로 3,214개, 함경도는 4,220개로 감소율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행정적 기반이 강했던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가 여타 지방에 비해 인위적인 지명 통폐합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2) 자연지명의 유형과 분포

우리나라 지명에는 그 형태나 유형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자연현상과 관련한 지명어가 가장 많은데 이는 지명이 인간의 환경지각의 결과로서 지형, 위치, 물, 암석, 동·식물 등의 생활환경과 인간의 오랜 상호작용 결과로 갖게 되는 유연성이 땅이름 생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김윤학, 1996, 9). 그러나 『일제시기기본도』상에 수록된 자연지명은 모두 18,442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전체 지명어의 명명기반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행정, 자연, 인문 등 지명의 형태에 의한 자연경관 및 지형지물을 지칭하는 지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하여 자연지명을 산지/고개/하천/평야/해안/천정/기타 지명으로 중분류하였고, 그 하위분류체계에 따라 세분하여 총 5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연지명의 유형별 점유율을 보면 山脈/山/峰/谷/巖/隅/岳/垓/德 등의 산지지명은 10개의 유형에 총 8,124개의 지명이 분포하여 전체 자연지명 가운데 44.1%를 점유하였다. 다음으로 古介/嶺/峴/峙/嶺 등의 고개지명이 6개의 유형에 4,099개(22.2%), 半島/灣/島嶼/串/潟湖/巖/砂嘴 등의 해안지명이 12개의 유형에 3,305개(17.9%), 江/川/湖/沼/池/澤/潭/溪/瀑布/濕地 등에 기초한 하천지명이 20개의 하위 유형에 2,871개(15.6%)의 지명이 각각 분포하였다. 그 밖에 平野 등의 평야지명은 2개 유형에 28개(0.2%), 泉/井/溫泉/藥

水 등 천정지명은 5개 유형에 15개(0.1%)의 지명이 분포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도사와 산지의 분포가 탁월한 전라도와 평안도가 각각 3,772개(20.5%)와 3,547개(19.2%)로 수위를 점하고, 이어서 함경도 2,626개(14.2%), 경상도 2,562개(13.9%), 강원도 1,963개(10.6%)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자연환경적 기반이 강한 강원도의 비중이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강원도의 전체 지명수가 적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자연지명의 지역별 비중을 비교하면 강원도가 함경도, 평안도 다음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지명의 중분류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포 정도와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자연지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지명이 총 8,124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평안도가 1,670개로 20.6%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경상도가 15.3%, 함경도가 14.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산지와 함께 전국적인 분포가 특징인 고개지명은 4,099개였으며, 평안도가 979개로 24.0%를 점유한 가운데 함경도 16.8%, 강원도 16.3% 등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이들 지역의 험준한 자연환경적 기반과 지역민들의 산지지형에 대한 높은 환경적 지각을 엿볼 수 있다. 산지지형의 분포는 하천지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하천지명 역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평안도가 633개로 22.0%, 함경도가 616개로 21.4%를 점유하였고, 이어서 경상도 14.0%, 강원도

표 4. 자연지명의 유형별, 지역별 분포

(단위: 개)

	산지	고개	하천	평야	해안	천정	총계
강원도	944	667	283	3	66	0	1,963
경기도	582	221	206	4	272	0	1,285
경상도	1,247	523	402	0	389	1	2,562
전라도	1,181	508	275	0	1,808	0	3,772
충청도	626	284	195	0	199	1	1,305
평안도	1,670	979	633	3	253	9	3,547
함경도	1,193	690	616	16	110	1	2,626
황해도	681	227	261	2	208	3	1,382
총계	8,124	4,099	2,871	28	3,305	15	18,442



9.6%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해안지명은 지역적 편차가 큰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총 3,305개의 지명 가운데 도서 분포가 가장 많은 전라도에 1,808개의 지명이 분포하여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자연지명 가운데 특기할 점은 평야와 관련한 지명이 극히 적어 전국적으로 24개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이들 대부분이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등의 산간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남한의 주요 농업지대라 할 수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 등지에서는 평야와 관련한 지명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분석 자료로 활용된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텍스트<sup>6)</sup>가 지형도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도는 여타의 지리지도나 사전과 달리 지도상의 모든 지형지물을 선, 점, 면 기호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 3) 인문지명의 유형과 분포

인문현상과 관련한 지명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명이 다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나 유형 경계가 모호하여 세분류가 용이하지 않은 지명이 많다. 이에 『일제시기기본도』에 수록된 전체 지명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인문지명을 취락/경제/교통/군사/문화/기타 지명으로 중분류하고, 다시 그 하위분류체계에 따라 모두 107개의 유형으로 세분류하여 지명의 유형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지도상에 수록된 인문지명은 행정지명과 자연지명을 합한 수보다 많은 70,083개(56.7%)였는데 이 가운데 里/洞/村 등과 같은 취락지명이 67,004개로 95.6%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보였는데 그 지명어의 형태도 대단히 다양하여 소분류 유형만 해도 44개에 이른다. 다음으로 寺刹/陵墓/祠廟/樓亭/學校/堂/碑石 등의 문화지명이 28개 하위 유형에 1,268개(1.8%)의 지명이 분포하였고, 鐵道/橋梁/鐵道驛/浦/幕/津/燈臺/渡 등의 교통지명이 15개 유형에 714개(1.0%), 農畜産業/水産業/林業/鑛工業/商業/서비스업 등 경제지명이 9개 유형에 574개(0.8%), 憲兵隊/烽燧/城/墩臺 등의 군사지명이 10개 유형에 523개(0.7%)의 지명이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총 70,083개의 인문지명 가운데 전라도에 13,178개의 지명이 분포하여 18.8%의 비중을 보였고, 이어서 경상도에 10,930개(15.6%), 평안도에 10,153개(14.5%), 충청도에 8,682개(12.4%), 황해도에 8,255개(11.8%) 순으로 그 분포도가 높았다. 특히 자연지명에 비해 인문지명의 지역적 분포는 인구 및 경지, 군현 수 등 인문현상의 규모와 분포 특성 뿐 아니라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야욕과 그 정책이 반영되어 있어서 단순히 지명의 공간적 차별성을 넘어 당시 국토의 변화된 모습까지 추적할 수 있다. 이는 인문지명의 중분류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포 정도와 특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인문지명 가운데 취락지명은 전라도에 12,634개가 분포하여 지역별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상도, 평안도, 충청도, 황해도 순으로 분포하는 취락지명, 즉 마을명이 많았다. 이는 행정지명의 분포 특성에서와 같이 삼남지방은 물론 북부지방 가운데 해안평야를 끼고 있는 평안도와 황해도 등지의 인구 및 경지 분포와 밀도 등에 기초한 자연 마을이 많았던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취락 관련지명이 전체 인문지명 가운데 95.6%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제시기기본도』상에는 변화된 행정명과 함께 고유한 마을명도 대다수 수록되어 있어서 지명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되고 있다.

한편 취락지명을 제외하면 여타 인문지명의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문화지명은 전국적으로 1,268개가 분포하였다. 지역별로는 경상도에 273개의 지명이 분포하여 21.5%를 점유하였고, 전라도 18.5%, 경기도 14.2%, 평안도 12.5%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다. 이는 문화지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찰의 지역적 분포와 비례하는 것으로 북부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규모와 경지밀도 등이 높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문화 관련지명이 배 이상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통지명은 전국에 714개가 분포하였는데 자원확보와 군사적, 행정적 중심지 등을 연결하는 서울-호남 축과 서울-함경 축을 따라 지명 분포가 많았다. 전라도가 134개의 지명으로 18.8%를 점유하였고, 경기도와 함경도가 각각 15.1%,

표 5. 인문지명의 유형별, 지역별 분포

(단위: 개)

	취락	경제	교통	군사	문화	총계
강원도	6,009	51	43	69	135	6,307
경기도	5,638	44	108	71	180	6,041
경상도	10,447	35	86	89	273	10,930
전라도	12,634	120	134	55	235	13,178
충청도	8,457	22	69	33	101	8,682
평안도	9,659	160	86	89	159	10,153
함경도	6,147	78	106	82	124	6,537
황해도	8,013	64	82	35	61	8,255
총계	67,004	574	714	523	1,268	70,083

14.8%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그 외에 경상도, 평안도, 황해도 등에서도 지명분포가 많았다. 문화지명과는 대조적으로 교통지명은 북부지방에서도 비교적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데 이는 자원 확보 및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지명은 모두 574개가 분포하였는데 특히 지역적 편차와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안도가 160개로 27.0%, 전라도가 120개로 21.6%의 점유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함경도 13.2%, 황해도 10.8%, 강원도 8.6%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다. 북부지방에서 광공업 관련지명이 절대적인 분포를 보인 반면 남부지방은 농축산업 관련지명의 비중이 높아 지역의 산업기반과 정책적 수요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군사지명은 전국적으로 523개가 분포하여 지역적 편차가 크지 않았는데 경상도와 평안도에 각각 89개가 분포하였고, 이어서 함경도, 경기도, 강원도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 4. 지명어의 빈도와 지역성 읽기

##### 1) 자연 지명어의 빈도와 지역성

지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위하여 각 지명어의 형태소별 빈도와 그 지역적 차이를 비

교해 보았다. 이는 각각의 지명어가 함의하고 있는 자연 및 인문 환경적 관계와 입지, 공간적 분포를 통해 지역성을 읽고, 비교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자연지명과 관련하여 총 56개 형태소별로 지도상에 수록된 개체수가 100개 이상인 지명어를 추출하였는데 山, 島嶼, 峰, 嶺, 川, 峴, 峙, 江, 巖, 岩, 岳 등 11개로 범주화 되었다.

이들 지명어의 형태소별 빈도 차이를 보면 전체 자연지명 18,442개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지명어는 山으로 한반도 전역에 모두 5,203개(28.21%)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島嶼 2,922개(15.48%), 峰 2,258개(12.24%), 嶺 1,656개(9.00%), 川 1,625개(8.81%), 峴 1,321개(7.16%), 峙 1,089개(5.90%), 江 900개(4.88%), 巖 295개(1.60%), 岩 140개(0.76%), 岳 125개(0.68%)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지도상에 수록된 개체수가 100개 이상을 나타내는 자연 지명어의 지역적 빈도 차이와 특성을 살펴보면 산지와 관련하여 산, 봉, 암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산은 평안도를 필두로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서 분포 빈도가 높았고, 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암은 함경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지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산지 지명 중에 특히 악은 전라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행정체제 상 기생화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제주도가 전라도에 편입되어 있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고개와 관련한 지명

표 6. 자연 지명어의 빈도(개체수 100개 이상)

(단위: 개, %)

	산지				고개			하천		해안	
	山	峰	巖	岳	嶺	峴	峙	川	江	島嶼	岩
강원도	564 (3.06)	291 (1.58)	47 (0.25)	1 (0.01)	152 (0.82)	293 (1.59)	214 (1.16)	159 (0.86)	75 (0.41)	35 (0.19)	16 (0.09)
경기도	444 (2.41)	123 (0.67)	10 (0.05)	-	23 (0.12)	174 (0.94)	24 (0.13)	102 (0.55)	90 (0.49)	230 (1.25)	3 (0.02)
경상도	936 (5.08)	254 (1.38)	38 (0.21)	-	152 (0.82)	224 (1.21)	143 (0.78)	216 (1.17)	128 (0.69)	332 (1.80)	15 (0.08)
전라도	689 (3.74)	317 (1.72)	36 (0.20)	124 (0.67)	27 (0.15)	35 (0.19)	439 (2.38)	154 (0.84)	81 (0.44)	1,730 (9.38)	45 (0.24)
충청도	475 (2.58)	144 (0.78)	5 (0.03)	-	27 (0.15)	9 (0.50)	165 (0.89)	154 (0.84)	35 (0.19)	165 (0.89)	9 (0.05)
평안도	1,030 (5.59)	512 (2.78)	58 (0.31)	-	663 (3.60)	296 (1.61)	14 (0.08)	268 (1.45)	279 (1.51)	212 (1.15)	15 (0.08)
함경도	547 (2.97)	485 (2.63)	73 (0.40)	-	570 (3.10)	40 (0.22)	75 (0.41)	382 (2.07)	163 (0.88)	55 (0.30)	15 (0.08)
황해도	518 (2.81)	132 (0.72)	28 (0.15)	-	42 (0.23)	169 (0.92)	15 (0.08)	190 (1.03)	49 (0.27)	163 (0.88)	22 (0.12)
계	5,203 (28.21)	2,258 (12.24)	295 (1.60)	125 (0.68)	1,656 (9.00)	1,321 (7.16)	1,089 (5.90)	1,625 (8.81)	900 (4.88)	2,922 (15.48)	140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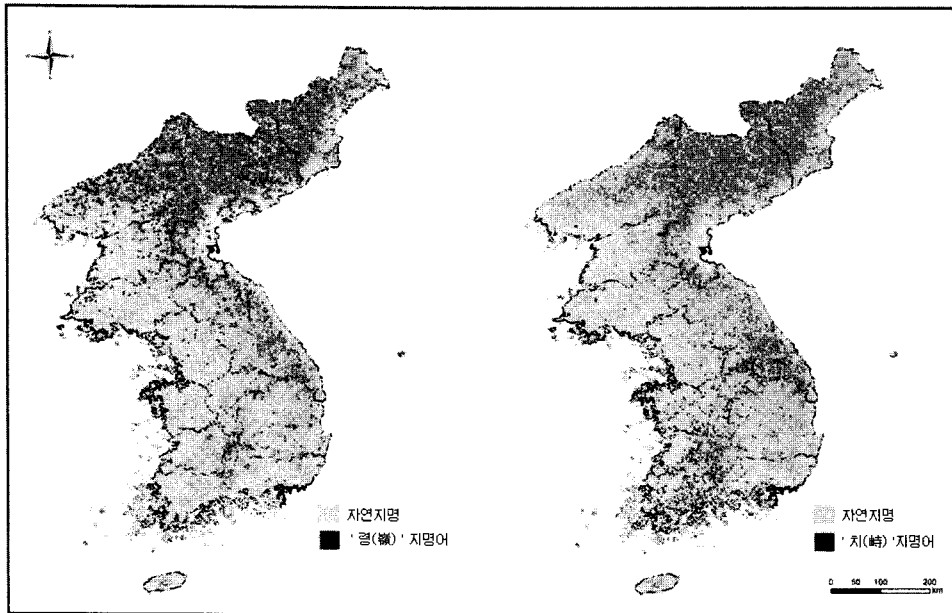


그림 2. 고개관련 지명어의 지역적 분포

어로는 령, 현, 치의 순으로 빈도 차이가 나는데 자연 지명 가운데 이들 고개지명은 지역의 지형환경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사례로 전체 고개지명 4,099개 가운데 령, 현, 치가 99.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현이 전국에서 비슷하게 사용된 것에 비해 개체수가 가장 많은 령은 함경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방에서 빈도가 탁월하고, 치의 경우는 전라도, 강원도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에서 높은 분포를 보여 고개 지명어의 지역적 이용 빈도 차이를 읽을 수 있다. 하천지명의 천과 강은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등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해안지명에서는 한반도의 북서부에서 남동부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도서 지명어의 분포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라도에 전체 도서 지명의 59.2%가 집중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비록 개체수가 100개를 넘지 못하여 전체 자연지명 가운데 분포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역적 특성과 차이를 읽을 수 있는 지명어가 여럿이다. 산지와 관련하여 산맥은 평안도와 강원도에 집중되어 험준한 지형적 기반을 시사해주는 반면 골짜기는 함경도에서 많이 사용하였고, 산지 또는 봉우리를 지칭하는 德, 垆 등의 지명어는 함경도, 평안도 등의 북부지방에서 주로 발견되어 지형지물에 대한 지역적 명명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湖, 沼, 池, 浦, 澤 등의 호수와 관련된 지명어는 경상도, 함경도, 강원도 등을 중심으로 개체수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강릉 이북의 사빈해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석호군과 낙동강, 두만강 하안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배후습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인문 지명어의 빈도와 지역성

인문지명 역시 107개 형태소별로 지도상에 수록된 개체수가 100개 이상인 모든 지명을 대상으로 빈도를 비교 분석하고,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총 70,083개에 달하는 인문지명 가운데 개체수 100개를 넘는 지명어는 취락지명과 관련하여 洞, 里, 村, 谷, 山, 岩, 坪, 浦, 峴, 基, 亭, 垌, 川, 德, 田, 峙, 項, 井, 幕, 城, 院, 場이며, 경제지명과 관련하여 농축산업, 광공업,

교통지명과 관련하여 철도, 교량, 철도역, 군사지명과 관련하여 현병대, 봉수, 문화지명과 관련하여 사찰 등 모두 30개로 그 이용 빈도가 범주화되었다. 이렇듯 인문 지명어 중에서 특히 취락과 관련한 마을 지명어가 많은 것은 취락지명이 쉽게 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명 확인과 조사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전체 취락지명 가운데 개체수 100개를 넘는 마을 지명어 22개의 점유율은 83.1%에 이른다.

각 지명어의 형태소별 빈도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인문지명 가운데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지명어는 총 22,808개가 수록되어 32.54%의 빈도를 보여 준 洞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里가 3,993개로 23.93%를 점유하여 우리나라 마을 지명어의 59.1%가 동/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村 3,993개(5.70%), 谷 2,673개(3.81%), 山 1,265개(1.81%), 岩 1,050개(1.50%), 坪 973개(1.39%), 浦 811개(1.16%), 峴 698개(1.00%)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와 관련하여 광공업과 농축산업이 각각 334개, 108개로 전체 인문지명에서 0.48%와 0.15%를 점유하였다. 광공업에서는 광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농축산업에서는 수리시설과 재배장 등의 비중이 높았다. 교통과 관련하여 철도 166개(0.24%), 교량 135개(0.19%), 철도역 131개(0.19%)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군사와 관련하여서는 현병대 242개(0.35%), 봉수 100개(0.14%), 문화와 관련하여 사찰 886개(1.26%)가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 지명어들의 지역적 빈도와 특성을 보면 먼저 취락과 관련한 마을 지명어들은 대체로 서남부 평야지대가 동북부 산간지대에 비해 이용 빈도가 높아 지형적 특성과 취락입지의 일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농업적 기반이 강하고 인구분포가 많았던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다양한 취락 지명어를 발견할 수 있다. 취락 지명어의 대체적인 지역적 분포 경향을 보면 곡, 산, 압, 기, 정, 천, 전, 치 등이 남부지방에서 우세한 반면 평, 포, 현, 대, 덕 등은 북부지방에서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향, 정, 막, 성, 원, 장 등은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그러나 몇몇 지명어는 지역적 빈도 차이가 뚜렷하여 지명어를 통해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표 7. 인문 지명어의 빈도(개체수 100개 이상)

(단위: 개, %)

	취락													
	洞	里	村	谷	山	峯	坪	浦	岨	基	亭	堡	川	德
강원도	1,901 (2.71)	1,027 (1.47)	414 (0.59)	498 (0.71)	72 (0.10)	109 (0.16)	148 (0.21)	71 (0.10)	90 (0.13)	67 (0.09)	60 (0.09)	157 (0.22)	77 (0.11)	29 (0.04)
경기도	1,678 (2.39)	1,698 (2.42)	540 (0.77)	364 (0.52)	91 (0.13)	59 (0.08)	48 (0.07)	93 (0.13)	145 (0.20)	43 (0.06)	22 (0.03)	59 (0.08)	46 (0.07)	2 (0.00)
경상도	4,132 (5.90)	1,460 (2.08)	431 (0.61)	651 (0.93)	235 (0.34)	167 (0.24)	132 (0.19)	140 (0.20)	106 (0.15)	223 (0.32)	110 (0.12)	5 (0.01)	146 (0.21)	32 (0.05)
전라도	1,992 (2.84)	5,310 (7.58)	545 (0.78)	318 (0.45)	422 (0.60)	277 (0.40)	152 (0.22)	104 (0.15)	52 (0.07)	145 (0.21)	221 (0.32)	17 (0.02)	110 (0.16)	67 (0.10)
충청도	1,485 (2.12)	4,421 (6.31)	280 (0.40)	284 (0.41)	158 (0.23)	127 (0.18)	84 (0.12)	54 (0.08)	54 (0.08)	48 (0.07)	62 (0.09)	97 (0.14)	46 (0.07)	17 (0.02)
평안도	4,316 (6.16)	2,214 (3.16)	303 (0.43)	294 (0.42)	99 (0.14)	77 (0.11)	114 (0.16)	73 (0.10)	82 (0.18)	6 (0.01)	30 (0.04)	25 (0.04)	24 (0.04)	65 (0.09)
함경도	2,506 (3.58)	377 (0.54)	755 (1.08)	184 (0.26)	68 (0.10)	81 (0.12)	246 (0.35)	183 (0.26)	19 (0.03)	38 (0.05)	14 (0.02)	23 (0.03)	13 (0.02)	278 (0.40)
황해도	4,798 (6.85)	262 (0.37)	725 (1.03)	80 (0.11)	120 (0.17)	153 (0.22)	49 (0.07)	93 (0.13)	150 (0.21)	37 (0.05)	45 (0.06)	134 (0.19)	51 (0.07)	7 (0.01)
계	22,808 (32.54)	16,769 (23.93)	3,993 (5.70)	2,673 (3.81)	1,265 (1.81)	1,050 (1.50)	973 (1.39)	811 (1.16)	698 (1.00)	607 (0.87)	564 (0.80)	517 (0.74)	513 (0.73)	497 (0.71)

취락								경제		교통			군사		문화
田	時	項	井	幕	城	院	場	광공업	농축산업	철도	교량	철도역	현병대	봉수	사찰
85 (0.12)	71 (0.10)	45 (0.06)	7 (0.01)	27 (0.04)	12 (0.02)	21 (0.03)	7 (0.01)	34 (0.05)	5 (0.01)	5 (0.01)	7 (0.01)	6 (0.01)	50 (0.07)	10 (0.02)	100 (0.14)
16 (0.02)	20 (0.03)	11 (0.02)	26 (0.04)	30 (0.04)	6 (0.01)	20 (0.03)	12 (0.02)	13 (0.02)	9 (0.01)	46 (0.06)	26 (0.04)	12 (0.02)	17 (0.02)	5 (0.01)	104 (0.15)
137 (0.20)	45 (0.06)	58 (0.08)	26 (0.04)	23 (0.03)	30 (0.04)	32 (0.04)	20 (0.03)	20 (0.03)	6 (0.01)	16 (0.02)	11 (0.02)	23 (0.03)	48 (0.07)	21 (0.03)	216 (0.31)
102 (0.15)	154 (0.22)	35 (0.05)	41 (0.06)	17 (0.02)	32 (0.04)	17 (0.02)	19 (0.03)	17 (0.02)	59 (0.08)	22 (0.03)	10 (0.02)	19 (0.03)	12 (0.02)	16 (0.02)	174 (0.25)
41 (0.06)	56 (0.08)	24 (0.03)	5 (0.01)	18 (0.02)	19 (0.02)	20 (0.03)	13 (0.02)	13 (0.02)	1 (0.00)	19 (0.02)	12 (0.02)	13 (0.02)	4 (0.01)	14 (0.02)	75 (0.11)
17 (0.02)	8 (0.01)	20 (0.03)	45 (0.06)	31 (0.04)	23 (0.03)	22 (0.03)	22 (0.03)	123 (0.18)	19 (0.02)	20 (0.02)	14 (0.02)	22 (0.03)	54 (0.08)	9 (0.01)	101 (0.14)
41 (0.06)	23 (0.03)	49 (0.07)	0 (0.00)	12 (0.02)	14 (0.02)	12 (0.02)	23 (0.03)	59 (0.08)	8 (0.01)	28 (0.04)	22 (0.03)	29 (0.04)	31 (0.04)	21 (0.03)	80 (0.11)
16 (0.02)	12 (0.02)	13 (0.02)	66 (0.09)	11 (0.02)	28 (0.04)	6 (0.01)	13 (0.02)	55 (0.08)	1 (0.00)	10 (0.01)	33 (0.05)	7 (0.01)	26 (0.04)	4 (0.01)	36 (0.05)
455 (0.65)	389 (0.56)	255 (0.36)	216 (0.31)	169 (0.24)	164 (0.23)	150 (0.21)	129 (0.18)	334 (0.48)	108 (0.15)	166 (0.24)	135 (0.19)	131 (0.19)	242 (0.35)	100 (0.14)	886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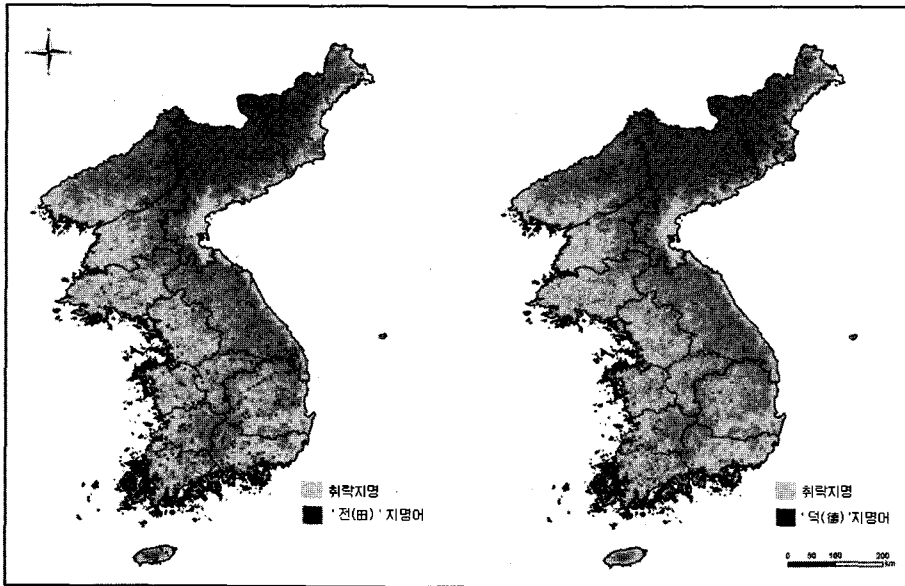


그림 3. 취락관련 지명어의 지역적 분포

실례로 지역의 환경적 기반과 선호 경향, 주민들의 자연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면 마을 지명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과 리의 경우, 동은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리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촌은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취락지명 가운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項 지명어는 산지, 해안, 하천 등 다양한 환경기반 위에서 볼 수 있는 좁고 긴 형태의 지형을 의미하는 '목' 지형이 지명에 그대로 투사된 경우라 할 수 있다. 田은 남한에서 우세한데 특히 들이 많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德은 북한에서 우세한 가운데 대부분 함경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전은 밭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역사상으로 田制라 하는 田은 田畚을 합한 개념으로 평야지역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덕은 언덕을 뜻하는 여진어계의 지명어로 『東國名山記』에는 '대저 높고 평평한 곳을 북인들은 덕이라 한다'고 하였고, 『北塞記略』의 白頭山南條에는 '백두리(백두산)의 좌우 고개는 모두 봉우리가 높고 평탄하고, 북쪽 길의 여러 산은 덕으로 된 것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이영택, 1986, 134-137). 즉 덕은 산정상상의 평지나 고원의 평정봉 등의 지형에

많이 붙여졌고, 한동안 여진족이 밀려와 살았던 함경도에 특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谷과 坪 역시 남북 간의 지역적 분포 차이를 보이는데 두 지역 간의 대조적인 자연 및 환경관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들 수 있다. 취락입지와 관련하여 즉곡은 골짜기를, 평은 평야 또는 들을 의미한다. 남부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이 많고 지형기복이 심한 북부지방에서 취락입지로 평야가 선호된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골짜기가 선호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와 관련하여 광공업 지명어로는 광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등 북부지방에서 절대적인 빈도를 보이는 반면 농축산업 지명어로는 수리시설과 재배장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전라도 지방에서 높은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 지명어로 철도와 철도역은 경의선과 경원선, 호남선과 경부선 등 Z자형 철도망을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현병대와 봉수와 같은 군사 지명어는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경상도 등을 중심으로 한 내륙 국경지대와 항만, 자원매장 지역 등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경제, 교통, 군사 지명어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철도부설 및 국경지역 관리를 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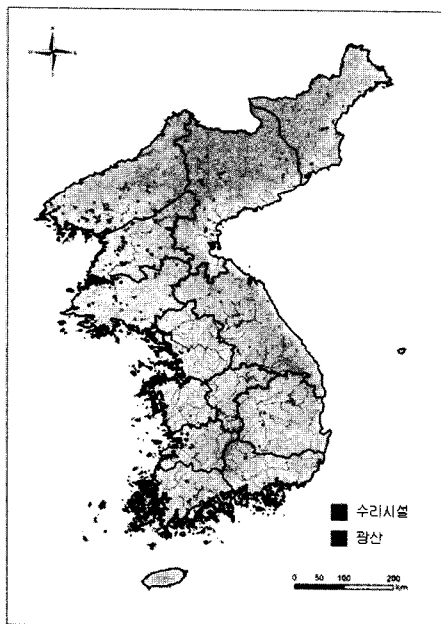


그림 4. 광산과 수리시설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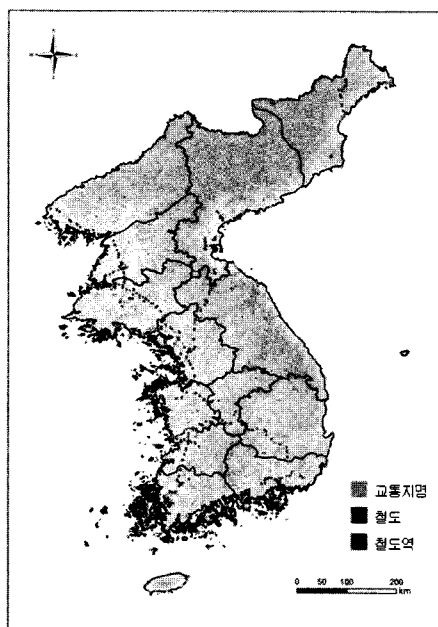


그림 5. 철도, 철도역의 분포

일제의 한반도 식민경영과 관련한 지명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문화 또는 민속과 관련한 지명어는 가장 빈도가 높은 사찰을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사찰은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인구와 읍치가 많은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등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인문지명에서도 비록 개체수가 100개를 넘지 못하여 통계처리에서 누락되었지만 특기할만한 지명어로는 교통 관련 지명어 가운데 幕 또는 酒幕이 驛, 院, 站을 합한 개체수보다 월등히 많고, 浦 지명어가 津과 渡를 합친 것보다 많아 일제시기 당시 교통 관련 지명어로는 육로의 막과 수로의 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외, 경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전국적으로 75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라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군사와 관련하여 城은 전국적으로 83개가 분포하였다. 문화와 관련하여 농묘와 사묘가 각각 73개, 66개가 확인되었는데, 지역적으로 역사, 문화적 기반이 강한 경기도에 대다수 분포하였고, 누정은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등을 중심으로 55개가 확인되었다.

## 6. 맺음말

지명은 장소나 사물을 가리키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지각 주체의 의지와 감정, 환경관 등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의 결합체로서 지역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함의하고 있는 문화적 산물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총 12만 3,532개의 지명을 176개의 유형으로 세분류하여 그 분포와 빈도 등을 분석하고 전자문화지도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체계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지명을 통해 시대적, 공간적 특성을 읽어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지명 유형에 따른 지역적 분포를 통해 지명 속에 내재한 지역 환경 기반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지 및 고개 지명은 북동부, 해안 및 하천 지명은 남서부에 많았고, 유형별 점유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리 단위 행정지명과 취락지명은 삼남 및 관서 지방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지명의 대체적인 분포 양상은 동고서저 및 북고남저 형태의 지세와 인구 및 경지 밀도, 읍치와 군현 수, 행정 및 군사 기능 등 인문환경의 보편적 특성

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제시기기본도』상의 지명 분포는 당대의 정책적 요구와 필요에 기초한 시대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실례로 리 단위 행정지명은 1914년 일제에 의해 강행된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이전의 각종 사료들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락지명을 제외한 인문지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철도와 철도역, 광공업과 농축산업, 헌병대와 봉수 지명의 분포를 통해 일제의 한반도 식민경영과 자원수탈, 철도부설, 국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만주경영 의욕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산과 수리시설은 각기 평안도와 전라도에 탁월하게 분포하였고, 국경지역인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에는 헌병대가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지명에 담긴 당대 사람들의 환경인식과 선호경향, 입지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에 기초한 지역성은 보다 세분화된 지명어의 빈도와 분포 특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가운데 위치, 지형, 기후, 방위 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명명기반을 둔 지명어가 가장 많아 인간의 거주환경이 지리적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리, 환경적 차이가 그대로 지명에 투사된 예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項 지명어는 좁고 긴 형태의 '목' 지형을 의미하는데 산지, 해안, 하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반해 같은 환경기반을 가진 지명어라도 명명 형태와 빈도가 지역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경우로 산지 또는 봉우리를 의미하는 德은 여진어계의 지명어로 한때 여진족이 거주하였던 함경도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고개 지명어 중에서 峴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반면 嶺은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峙는 전라도에서 탁월하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취락입지와 관련하여 지역간의 상반된 환경관과 선호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坪은 상대적으로 산이 많고 지형기복이 심한 북부지방에 많았고, 谷은 평야 또는 들이 넓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발견되어 지역의 실제 지형환경과는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註

- 1) 196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회 UN 지명통일회의에서 제안된 지명용어 통일안에 따르면 지명(geographical name)을 지리적 실재물(geographic entity)을 총칭하는 고유이름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지명(toponym), 자연지형명(feature name), 인간거주지명(place name) 등이 제안되었다(이영택, 1986, 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명의 개념을 특정 장소에 붙여진 땅이름으로서 만이 아니라 일정 범위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자연 및 인문 지리적 제 사상의 명칭까지를 포함시켰다.
- 2) 일제시기 『五萬分一地形圖』의 지명 데이터베이스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이다.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한국지명총람』, 『조선향토대백과』, 『일제시기 1:5만 지형도』,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1872년 군현도』, 『대동여지도』, 『동여도』, 『청구도』, 『해동지도』 등 사전류 3종과 지도류 7종의 텍스트에 수록된 모든 지명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전자문화지도(electronic cultural atlas)로 구현하여 웹서비스하고 있다.
- 3) 일제에 의해 제작된 1:50,000 한반도 지도는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작되었다. 제1차시기의 지도는 한일병합 이전, 보측(步測)과 목측(目測)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略圖(484매, 1894~1906)로 1996년 한국에서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로 영인본이 간행되었다. 제2차시기의 지도는 한일병합 이후 '약도'를 측량에 의해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地形圖(342매, 1912~1916)로 삼각점 망이 완벽하게 구축되면서 제3차지도 제작을 위해 중단되었다. 제3차시기의 지도는 근대식 측량법인 삼각측량에 의해 제작된 '基本圖(722매, 1914~1918)로 정식명칭은 『五萬分一地形圖』이며, 1998년에 간행된 영인본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는 상권 343매, 하권 379매로 분철되어 있다(박선영, 2006, 17-29).
- 4) 전자문화지도(electronic cultural atlas)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확산되고 있는 수치지도를 저본으로 다양한 생활문화적 정보와 자료를 입체화할 수 있는 주제도로서 인간의 총체적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요소를 디지털 정보매체를 통해 유의미하게 기호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문화지도는 시간·공간·주제의 다차원 구조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이형대, 2003, 2-3).
- 5) 지명 데이터베이스는 지도상에 수록된 모든 지명을 기본도 위에서 직접 디지털이정하는 방법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군 또는 면 경계 안에서 같은 행정지명이 여러 번 중복하여 입력될 수 있다.
- 6)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텍스트인 『일제시기기본도』는 총 117 항목에 달하는 범례를 사용하여 이전의 지도들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특히 평야와 같은 면적단위의 경관은 대개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기재하기 보다는 논 또는 밭 등의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 文獻

- 김순배, 2004, “지명 변천의 지역적 요인,” *문화역사지리*, 16(3), 65-85.
- 김연옥, 1986,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논총*, 4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59-290.
- 김옥자, 1992,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학, 1996, *땅이름 연구*, 박이정출판사.
- 김정미, 2003, 김포시 지명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혁, 2003,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변동과 복원,” *문화역사지리*, 15(2), 97-124.
- , 2006,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의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심포지움 자료집, 93-100.
- 김지은, 2001, 지명과 지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우, 1997, “두모系 古地名의 起源,” *대한지리학회지* 32(4), 479-490.
- 박경준, 2003, 동·서해안 지역의 지명 비교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대우학술총서*(553), 아카넷.
-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한국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화, 1999,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창녕군, 봉화군, 남해군의 경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1), 1-24.
- 서명인, 1998, 청원군 지명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국자, 1998, 평야지역과 산지지역 촌락지명의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흥기, 1987, “한국적 Geomentality에 대하여,” *지리논총*, 14,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이영택, 1986, *한국의 지명*, 태평양출판사.
- 이형대, 2002, “디지털 정보시대의 문화지도 그리기: 매체 특성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민족문화연구*, 3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임학성, 2004, 조선후기 戶·口와 村里의 변화 양상,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개발과 문화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87-94.
- 정진원, 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 *지리논총*, 9, 59-79.
- 정치영, 2004, “조선후기 인구의 지역별 특성,” *민족문화연구*, 40, 27-5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 2005, “마을명 분석을 통한 마을 입지 및 지역성 연구: 경기도와 함경도의 비교,” *문화역사지리*, 17(2), 58-73.
- 조성욱, 2007, “사회적 영향에 의한 지명 변화의 원인과 과정: 전북 진안군 지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526-542.
- 최기환, 1998, 아산 지역 지명 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5, *자연지리학사전*, 개정판, 한울출판사, 320.
- 한글학회, 1991,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1428-1429.
- Kaups, M., 1966, *Finnish place names in Minnesota: a study in cultural transfer*, *Geographical Review*, 56.
- Mario, P., 1965, *The Story of Language*, revised edition; J. B. Lippincott Company, New York.
- Seamon, D., 1978, *A Geography of the Lifeworld*, Martin's Press, New York.
- 교신 : 김선희,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sunnykim22@gmail.com, 핸드폰: 011-758-7572, 팩스: 02-925-0524)
- Correspondence: Sunhee Kim, Dept. of Geography, Sungshin University, Seoul 136-742, Korea (e-mail: sunnykim22@gmail.com, mobile: 82-11-758-7572, fax: 82-2-925-0524)

최초투고일 08. 03. 07.

최종접수일 08. 03. 22.